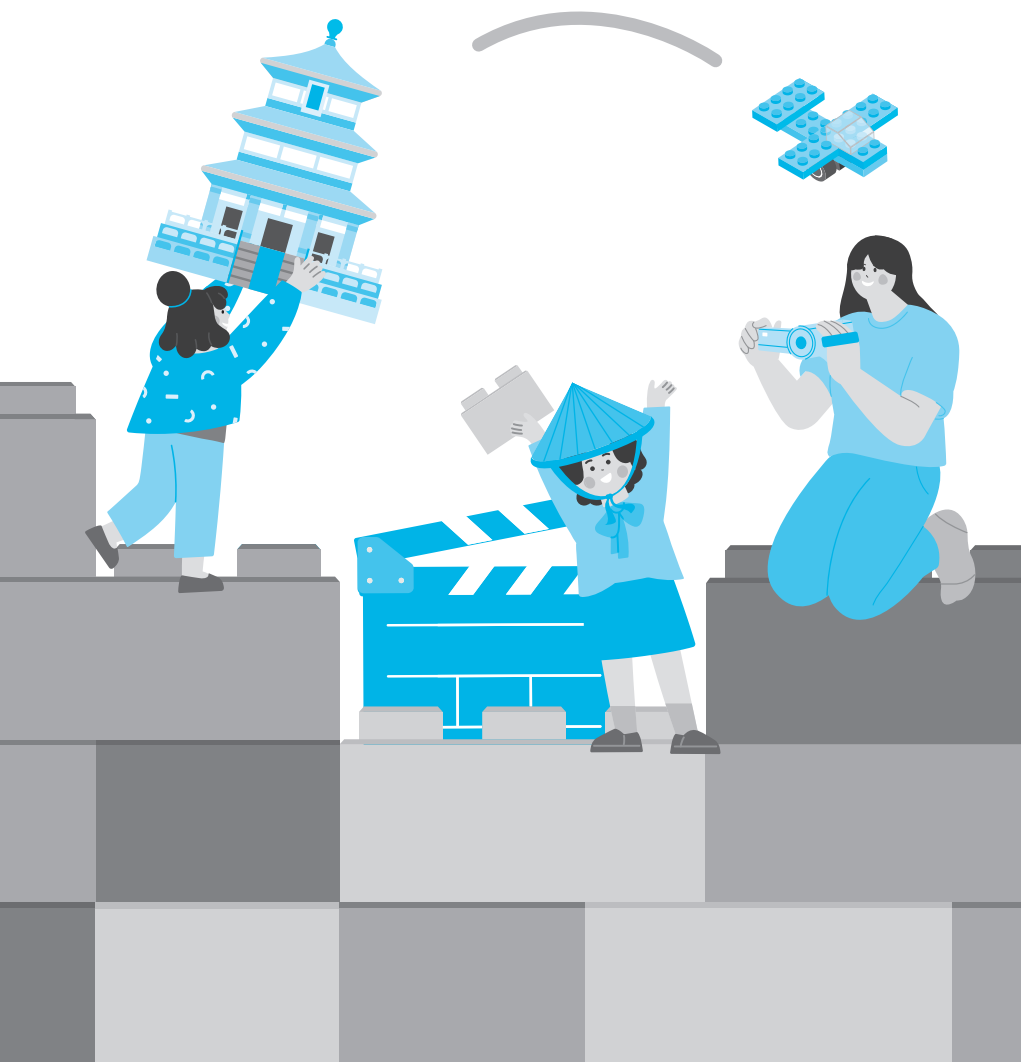


꿈틀꿈틀 레고레고

'꿈의 틀'로 '꿈틀'대는
문화 다양성 프로젝트



Contents

01 레고 프로젝트의 배경 : 대구 달서구 성서지역의 이야기

1.1.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의 배경과 지역 특성	08
1.2. 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기획하였을까?	11

02 꿈틀꿈틀 레고레고 프로그램의 발달 과정

2.1. 제0기 : 성서지역의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역량 축적	22
2.2. 제1기(2020년~2022년) : 성취감을 자극하는 재미 요소를 강조한 교육	26
2.3. 제2기(2023년~2024년) : 지역사회로 성과를 확장하기	35

03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요인, 어려움, 그리고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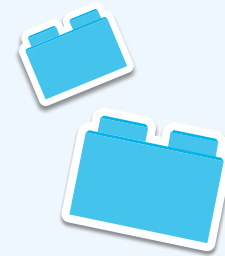
3.1.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요인	42
3.2. 프로그램의 성과를 가로막는 어려움	51
3.3.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58

04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4.1. 참여 아동의 성장과 변화	66
4.2. 교강사의 성장과 변화	78

05 향후 방향과 과제





01

레고 프로젝트의 배경 : 대구 달서구 성서지역의 이야기

- 1.1.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의 배경과 지역 특성
- 1.2. 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기획하였을까?

1. 레고 프로젝트의 배경 : 대구 달서구 성서지역의 이야기

대구시의회 표창장

유난히 무더웠던 2024년 여름. 그 더위가 채 가시기 전인 2024년 9월 5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여러 어른 속에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앉아 있다. 단체 공로 표창 대상으로 ‘꿈틀꿈틀 레고레고’가 선정된 것이다. “대구시의회 의장상 수상자는 꿈틀꿈틀 레고레고 봉사단입니다. 대표로 000 학생이 수상하겠습니다.”라는 사회자의 호명에 여학생은 쭈뼛쭈뼛 단상으로 올라간다. 단상에 어디에 서야 하는지, 수상할 때 어떻게 표창장을 받아야 하는지, 사전 연습을 했지만, 여전히 어색하다. 사회자는 이 봉사단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꿈틀꿈틀 레고레고는 아동·청소년 봉사단으로 대구 내 다문화 초밀집 지역에서 다양성을 주제로 한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제작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체험 VR 미디어 패키지를 제작해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과 또래 친구들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대구광역시와 다름을 다채롭게 여길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림 1] 2024년 9월, 대구시의회 의장상을 받은 아이들

비로소 긴장이 풀린 학생은 시상자인 의회 의장님과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표창장은 마치 성화를 봉송하듯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본영지역 아동센터, 대구죽전초등학교, 한결지역아동센터를 한 바퀴 돌았고, 아이들은 그 표창장을 만져보고 사진을 함께 찍으며 자신이 무언가 큰일을 한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다. 그 칭찬이 아이들을 신나게 한다.

백설공주? 흑설공주!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던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오후 1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죽전초등학교의 한 과학실에 피부색이 다양한 아이들이 설렘을 안고 모이기 시작한다. ‘흑설공주’라는 이야기를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꿈틀꿈틀 레고레고의 단체 티셔츠를 입고 한 공간에 모인 아이들은 모둠별로 모여 이야기를 만화의 형식으로 만들어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역할대로 레고를 조작하고 영상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 중이다.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모습이 이곳 대구 달서구의 성서공단 지역에서는 낯설지 않다. 어찌 보면 한

국 사회의 다가온 미래일 것이다. 이곳 성서공단 지역의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5년간 성장해 온 레고 프로젝트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대구 달서 성서공단과 그 이주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꿈틀꿈틀 레고레고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하루

1.1.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의 배경과 지역 특성

달서구는 대구의 기초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4년 7월 기준 약 52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포항시의 49만 명보다 많다. 달서구는 성서와 월배 2개 도심지가 묶여 있는 지역이며, 성서지역은 달서구의 서북부 일대를 지칭하는 지명으로, 통상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서쪽 지역을 일컫는다. 성서(城西)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 조선 시대 경상감영¹이 위치하였던 대구도호부의 읍성인 달성의 서쪽 지역이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공식 명칭은 성서산업단지이나 대구 사람들에게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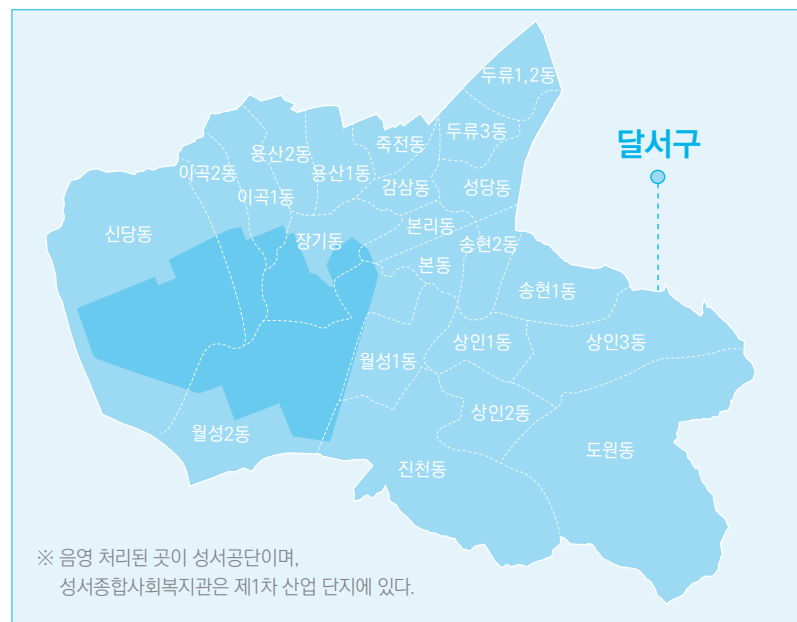
1 경상감영은 조선 시대 경상도를 관할 하던 관청으로서 현재의 도청소재지와 비슷한 개념이다. 경상감영은 경주, 상주, 성주 등을 옮겨 다니다 조선 선조 시기에 대구 지역에 자리 잡게 되었다.

서공단이라는 명칭이 좀 더 익숙한 이곳은 1965년 대구 달서구 갈산동과 장동을 중심으로 제1차 산업단지 공업지역 지정 이후 1984년부터 공단이 조성되어 현재 5차 산업단지까지 조성되었고, 전국에서 지방 산업단지로는 규모가 가장 크다. 조성 당시에는 섬유산업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 운송 장비, 전기 및 전자 등으로 산업이 확장되었는데,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주요한 산업단지로서 기능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던 1990년대 이후 노동자의 유입과 함께 2013년 61만 명으로 인구가 정점을 찍기도 하였지만, 지역 산업의 위축과 더불어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노동 인력 공급이 위축되며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이뤄졌다.

삼성자동차가 여기 공단에서 철수함에 따라 이곳이 위축됐죠. 그 주변에 직원들이 살기 위한 아파트도 지어져 있었거든요. 삼성자동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결국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 주거지만 덜렁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후에 또 IMF가 터지면서 복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대구의 경제 정책 내지 산업 정책도 성서산단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중략) 공장이 많았지만 회사들이 계속 부도나서 나가고 있었고, 시대를 못 따라가는 공단의 상황이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이 복지관을 둘러싸고 있는 주민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결국은 젊은 한국인이 사라지고 있었죠. (중략) 2010년 이후부터는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힘든 3D 업종들이 결국은 사람이 직접 몸으로 뛰고 또한 열악한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곳을 이주민들이 채우기 시작한 거죠.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병우 관장)

특히 2020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인구

유출이 심화되며 이주 노동자 유입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다. 현재 대구시의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달서구인데, 특히 성서공단안의 이곡동과 신당동을 중심으로 대구시 외국인의 30%가량이 밀집되어 있다. 배움터 사례연구를 위해 처음으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인근의 흔한 쌀국수 식당을 방문했을 때 메뉴판에 한글이 없고 베트남어로만 작성되어 있던 것이 이 지역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았다. 쌀국수를 주문하고 앉아 있으니 주변의 모든 대화에서 한국어를 듣기 힘들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0년 성서공단에 위치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배움터 교육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림 3] 대구시 달서구의 지도

1.2. 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기획하였을까?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1995년 개원했다. 1990년대는 성서공단의 산업체 입주가 가장 왕성한 시기였다. 1997년 IMF 위기는 복지관이 위치한 성서공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9년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으로 복지관은 저소득 위기 가정 여성 배우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한편, 2000년대 이후 서서히 유입이 증가한 이주 노동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2001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시작하였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이후 성서공단 지역의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이주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마다 펼쳐왔으며, 이는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재 미션, ‘다름이 아름다움을 만듭니다.’에 녹아 있다. 특히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초기 구성원은 1990년대 복지 운동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결출한 인물을 배출했다. 이 복지관을 거쳐 간 사회복지사들은 완전한 당사자 중심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월평빌라’를 만들었다. 당사자의 권리나 요구가 인정받지 못하는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안에서 새로운 실험으로 시작된 월평빌라는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새로운 모델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초창기 구성원들의 이상주의적 실천 경향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 조직화를 통한 자조적이며 자주적인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기보다 공공의 지원에 의존하여 문화 프로그램이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초창기부터 지역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형을 지향해 왔고, 이는 아직 이주 노동자 지원 복지 프로그램이 생소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이어지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미션과 비전, 가치 등을 살펴보면 다양성이 무

엇보다 중요한 핵심 가치임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이자 인권인 '다양성의 존중'을 핵심적 가치로 삼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복지관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주민 소통문화 열어가기', '다름이 머물 수 있는 공감 마을 만들기', '다름을 인정하는 창의적 지역복지 운동 전개' 등의 3가지 비전을 기반으로 '빈부, 장애, 국적,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종교 등의 '다름'으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민과 함께 관심과 노력으로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라는 미션을 제시하고 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미션을 기반으로,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성서공단 내 이주 노동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프로그램과 사업이 수행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생활 적응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2001년), 외국인 근로자 네트워크 프로그램(2002년), 외국인 근로자 여가 지원 프로그램(2004년), 결혼이주여성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2006년), 이주 노동자 체육대회(2006년), 결혼이민자 자원봉사단 운영과 대구 자원봉사자대회 대상 수상(2009년) 등 2000년대부터 이주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이 펼쳐졌다. 2000년대에는 당시의 한국 다문화 사업의 지향이 그러하듯 이주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정착 및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의 사업이 주였다면, 2010년대 들어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은 이주 노동자의 문화를 유지하며 상호 연결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들의 문화를 오히려 한국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방향이 확장된다. 예컨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결혼이민자 세계 문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한국필벽재단 지원으로 결혼이민자 모국 문화 나눔 활동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는데, 이는 자국 문화를 한국 사회에서 공유하고 알리는 작업이었다. 또한, 2015년에는 서구 중심의 세계문화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문학으로 확장함으로써 한국 사회 적응 지향 중심의 다

문화 사업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문화와 다양성 사업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구 성서공단 지역 내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가 조성된다. 현재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에 교강사 협력 기관으로 참여 중인 사회적기업 (주)ODS와 성서공동체FM이 대표적이다. (주)ODS는 2009년 다문화 교육연구소로 대구 성서지역에서 출발하였고, 2013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이 기업은 이주 여성의 다문화 교강사 양성을 통해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성서공동체FM은 지역 공동체 라디오로 2005년 FM 89.1 주파수로 출발하여 현재 성서지역 주민 30여만 명의 가청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 소규모 공동체 라디오로서, 성서공동체FM은 성서공단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전국 단위의 방송 송출을 하지 않고, 지역 내 송신소로부터 일정한 반경 이내에서 청취할 수 있는 방송을 말한다. 한국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였을 때는 2005년이며, 성서공동체FM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국한 공동체 라디오이다. 대부분의 공동체 라디오가 운영난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지만, 개국 이후 20년간 꾸준히 방송을 송출하며 성서공단 지역의 노동자와 이주민을 위해 방송 사업을 하는 곳이 바로 성서공동체FM이다. 성서공동체FM 역시 지역 내 언론으로서 이주 노동자의 삶을 방송의 중요한 주제로 다뤘었다. 또한, 아이들을 라디오 DJ로 출연하도록 하여, 직접 방송을 진행하는 실험적 작업도 수행한 바 있다. 이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능감을 느끼게 한다. 성서공동체FM과도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꾸준히 관계를 맺어왔고,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에서 아이들에게 영상 제작 실습 등을 교육하고 있다.

2019년 4월, 제5대 복지관 관장으로 취임한 김병우 관장의 리더십도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하반신 마비를 지닌 지체장애인이 되었고, 늦은 나이인 10대에 특수학교에 입학 후 받게 된 첫 교육의 경험을 잊지 못한다고 회고한다.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잘 타는 교육을 받았던 경험에서 그는 휠체어를 잘 타는 것 그 자체를 통해 자신감을 획득했고, 이후 1981년 10월 제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10km 휠체어 달리기 대회에 출전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주로에서 시민에게 받았던 응원은 평생의 기억에 남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1988년 서울 패럴림픽에서 휠체어 육상선수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상한 경력이 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교육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늦은 나이에 휠체어를 타고 10km 주로에 섰을 때 받은 환호성이 지금의 이주배경 아동에게도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한다. 손상 그 자체가 아니라 장애를 둘러싼 사회구조적 장벽과 차별이 장애의 문제를 유발하듯, 이주배경 그 자체가 아니라 이주배경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제약이 이들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김병우 관장은 직시하였다. 비록 김 관장은 휠체어 마라톤에 출전하고 주로에서 환호받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전형적인 '극복 서사'인 마라톤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아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꿈을 실현하는 것 그 자체로 환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 맥락에서 2020년 '꿈틀꿈틀 레고레고'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다.



[그림 4]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병우 관장(2019년 취임)

이를 종합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전형적인 사업에서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꿈틀꿈틀 레고레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1995년 설립된 복지관의 지역적 특성으로서 노동자 밀집 지역,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이주 노동자의 증가, 복지관의 미션으로 '다양성'을 내세운 과감함, 당사자 중심의 이념 지향을 지닌 복지관의 구성원 정체성, 그리고 2019년 취임한 5대 관장인 김병우 관장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의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이하 배움터 사업)과 결합한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대구 성서공단의 위축과 한국인 노동자의 감소라는 진공의 공간을 급격히 메우기 시작한 이 지역 이주 노동자의 급증 상황에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본 배움터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1.2.1. 이주민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욕구 포착

앞서 설명하였듯,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일찍부터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2000년대부터 꾸준히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 배움터 사업의 기획부터 5년을 끌고 온 핵심 인물은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이다. 그는 2000년대 초부터 복지관이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 지원사업을 펼쳐 왔고, 초창기 사업은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에 초점을 두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며 적응 그 자체를 넘어 '문화'의 다양성에 초점을 둔 새로운 욕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의 개념이 정책 단위에서 등장한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6년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된 이후이다.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으로, 초창기의 다문화정책은 사실상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생활적응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현재 제4차에 이르고 있는데,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²⁾은 '다문화가족의 표용적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그 핵심 정책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다문화 수용성 증진, 교육, 문화 증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관계 기관 합동, 2023). 다문화정책의 개념이 사실상 초창기에는 문화 동화주의적 정책에 기반하고 있었다면, 현재의 정책 방향은 문화 다원주의로서 실질적인 다(多)문화적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이러한 정책적 기조의 변화에 민감하게 따른 것은 아닌 것 같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복지관은 '적응'을 넘어서 문화 다양성을 통해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각을 기반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복지관의 다문화 관련 사업 방향을 전환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복지관 연혁을 살펴보면 2010년대 중반부터 문화 다양성, 문화 수용성, 이주민 문해교육 등으로 사업이 전환됨을 볼 수 있다. 즉, 이주자가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동화주의를 넘어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상호 언어를 이해하고 더욱 풍부한 언어역량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으로 무게를 전환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최 과장은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주민 다문화 가정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복지관이다 보니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다문화 가정이나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이분들이 안정되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문화 적응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복지 프로그램

2 관계기관 합동(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들이 진행됐었어요. 예를 들면 결혼 이주민분들하고 한국 주부들과의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조금씩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1.2.2. 지역 내 편견의 심화

2020년 2월 18일, 일명 '31번 확진자'의 등장과 함께 대구 지역은 한국의 우한처럼 여겨졌다.³⁾ 대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시작은 2020년 2월 19일이었고, 첫 사망자의 발생은 바로 다음 날 2월 20일에 있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유행은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고, 이는 온갖 혐오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중국 우한에서 발원하였다는 이유로 중국인과 재중 동포들에 대한 혐오가 쏟아졌다. 온라인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들이 넘쳐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20).⁴⁾ 대구시의 이주민 밀집 지역인 성서공단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구에 대한 사회적인 혐오의 압력 속에서 대구 시민의 혐오의 대상은 이주민을 향했다. 성서지역에서 이전에 없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나타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19가 이를 증폭시켰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은 개별화된 사회 적응의 문제를 넘어 지역 단위 전체의 집합

3 2020년 3월 18일 대구 신천지 교인인 일명 '31번 확진자'가 확진되기 전, 많은 이들이 모인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알려지며 언론에서는 그를 슈퍼 전파자로 지목하였다. 하지만 이후의 분석에 따르면 '31번' 이외에도 수많은 전파자가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그는 예배에 참석하였다는 이유에서 대규모 감염의 진원지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출처 : 한겨레(2022. 11. 10). '31번 확진자' 이전에 감염자 많았다...2020년 대구 상황 재구성.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66412.html)

4 국가인권위원회(2020).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적 문화 다양성 수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19라고 하였다. 그
는 ‘한국 생활 적응 못 해 나타나는 문제’(적응의 문제, 개별화된 문제)에서 ‘지
역적 문제’(집합적 문제)로 전환하는 것에 주목했다. 지역의 모든 문제 원인을
이주민에게 돌리는 혐오와 차별의 인식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것
을 큰 문제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혐오와 차별이 이주 1세대를 넘어 그 자녀 세
대에게도 확산하여 대물림되는 것, 그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
제로 바라보았다.

이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처음에 한국 생활 적응
을 못 하셔서 나타나는 문제에서 또 다른 지역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차별이나 혐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쓰레기 투기가 일
어나면 주민들이 결혼 이주민 집에 찾아가서 왜 쓰레기를 버리냐고 한다든지 이
런 편견이 마을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었고……. 근데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 그리
고 커나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차별이나 혐오가 생기기 시작했고, 특
히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재되어 있던 편견
적인 문제가 조금 더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
구 과장)

1.2.3. 학교 부적응 학생의 증가

최근 학교 부적응 학생의 증가 역시 이 프로그램의 출발 배경이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상담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죽전초등학교의 송경
숙 사회복지사는 최근 ADHD나 감정 및 행동장애 아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
는 학교 수업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원인을 무엇으로 단정할 수 없지

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습이나 학교의 활동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아
이들에게 좀 더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고민했던 것 역시
본 프로그램의 출발 배경이다.

예전에 한 학년에 1~2명 정도 외부 기관을 연계해서 심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이
랬다면, 요즘에는 학교에 알리지 않고 어머니가 직접 데리고 가서서 ADHD 약을
복용한다거나……. (중략) 약을 복용하는 아이들이 많은 반은 한 반에 막 4~5명
이렇게 되고, 이런 학급은 사실 학급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학교 부적응하는 학생들은 가만히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
고 감정이나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바
로 해야 하고 자리를 이탈해서 돌아다니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욕설을 하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수업이 안되고, 그 교실은
늘 이제 힘든 상태. 다른 아이들도 힘들고. (대구죽전초등학교 송경숙 상담복지
사)

1.2.4. 새로운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필요성

문화 다양성과 수용성을 증진하는 방안은 다양하게 이미 개발되어 있다. 그
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단순한 상대 문화에 대한 교육이거나 차별 및 혐오
에 대한 일회성 인식개선 교육에 머물러 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
장의 표현에 따르면 ‘월남쌈 한 번 먹어보고, 다른 나라의 옷을 한 번 입어보는
정도’로 문화의 신기성 수준에서 경험하고 끝내는 일회적 차원의 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분명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상대의 깊은 문화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인권의 체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2020년 이전부터 지역사회에 이주민이 증가하며 나타나기 시작한 차별과 혐오의 심화, 그리고 코로나19가 증폭시켰던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아이들의 표현에도 드러난다. 아이들이 중국인 친구에게 “너희 코로나지?”라고 발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에서 온 친구들한테는 “너희 코로나지?”라는 말부터, 그런 차별에서부터……. 그런 문제들이 2020년에 좀 터진 것 같았어요. 아이들 세계에서 이런 차별이나 편견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 이해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월남쌈 한번 먹어보고, 그 나라 옷 한번 입어보고……. 이런 이벤트적인 활동으로 서로 차별이나 편견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정작 아이들의 인식이나 태도는 변한 게 없었거든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02

꿈틀꿈틀 레고레고 프로그램의 발달 과정

- 2.1. 제0기 : 성서지역의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역량 축적
- 2.2. 제1기(2020년~2022년) : 성취감을 자극하는 재미 요소를 강조한 교육
- 2.3. 제2기(2023년~2024년) : 지역사회로 성과를 확장하기

2. 꿈틀꿈틀 레고레고 프로그램의 발달 과정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꿈틀꿈틀 레고레고’ 프로그램의 발달과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삼성꿈장학재단의 배움터 사업으로 처음 선정된 해는 2020년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이전부터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다문화 관련 사업을 지속해서 수행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역량을 축적해 왔다는 점에서 그 출발을 2020년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0기, 즉 코로나19 이전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성서지역에서 문화 다양성을 축적했던 시기부터 그 발달 과정을 다룰 것이다. 이후 개별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제1기(2020년~2022년), 그리고 공동사업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했던 제2기(2023년~2024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제0기 :

성서지역의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역량 축적

배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즉 2020년 이전의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문화 다양성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던 경험이 있고, 그 역량을 축적했다. 성서공단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나, 외국인 밀집 지역은 성서공단 이외에도 한국 사회에 다양하다. 하지만 동화주의를 넘어 문화 다원주의 관점에 기초하여 문화의 수용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의 역량이 축적되어 있

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2.1.1. 차곡차곡 쌓아온 ‘몰입형’ 콘텐츠

성서종합사회복지관 3층에는 여타 도서관과 다른 ‘달서다문화가족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50㎡(약 15평) 규모의 도서관으로 2009년 개관한 곳이다. 보통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작은 사랑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도서관은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정식 직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필자가 복지관에서 인터뷰나 회의 등을 할 때 늘 이용하던 공간이 바로 이 도서관인데, 도서관에는 온갖 신간 서적들이 엄선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를 확보하고 있어, 이주민이 자녀에게 자국 언어로 된 동화나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혜인 사서는 도서관을 통해 10여 년 가까이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이 도서관은 장서 확보와 독서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016년 처음으로 ‘다문화 문학 활용 샌드아트 다문화 콘텐츠 공연을 통한 건강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후 꾸준히 문화 다양성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주축에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다문화가족도서관 이혜인 사서가 있었다.

그는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다문화 프로그램이나 다양성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몰입형’ 프로그램이라는데 강점이 있다고 하였다.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0년대 중반부터 샌드 아트 등 몰입형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즐겁게 문화 다양성을 익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문화 다양성은 일회적인 교육을 넘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교육과

문화 콘텐츠를 통해 획득될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은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 무엇보다 ‘몰입’이 가능한 ‘흥미’ 요소를 강조했던 배경이 된 셈이다.

삼성꿈장학재단 프로그램을 하기 전부터 도서관에서 다양한 다문화 사업들을 진행했었어요. 과장님이란 저랑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선정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게 축적되어 있던 거죠. 당시 VR이라든가, 샌드 아트라든가 그런 쪽을 해본 경험이 있었던 거죠. 이런 몰입형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성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추구해왔던 목표들, 가치들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찾아지고 그래서 계속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자신감이 좀 있지 않아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다문화가족도서관 이혜인 사서)

2.1.2. 협력의 기반이 되어준 지역 네트워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축적하고 있던 지역 내 네트워크는 본 배움터 프로그램의 협력 기반이 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던 사회적기업 (주)ODS나 성서공동체FM은 문화 다양성을 매개로 오래전부터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온 곳이다. 현재 아이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주)ODS의 윤미애 강사는 2010년대 중반부터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세계문화지도사는 초·중등학교에서 모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강사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주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인 (주)ODS와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기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성장을 공유하는 관계가 형성되며 이번 배움터 사업에서도 아

이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된 것이다.

아마 2015년~2016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이민자가 자기 문화를 소개해 주는 세계문화지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도 1호로 여기 성서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진행했었고,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학교에 가서 자기 나라의 문화를 소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강사로 활약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성장하고 또 성서종합사회복지관도 같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획의 마음이 맞았던 거죠. (세계시민도래교육 윤미애 강사)

성서공동체FM도 마찬가지다. 성서공동체FM은 방송 청취의 주 대상을 분명하게 이주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국 초기부터 이주민을 위한 방송을 넘어 이주민에 의한 방송으로 확장해 왔다. 성서공동체FM과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인연은 도서관을 매개로 이어진다. 복지관의 달서구다문화가족도서관의 책 소개를 공동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시작한 것이 두 기관 연결의 시작이다. 성서공동체FM은 삶(life)과 도서관(library)을 잇는다는 기획으로 ‘라이플러리(Liflary)’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달서구다문화가족도서관을 통해 이주민이 직접 동화책을 방송에서 소개해 주는 것이다. 낮선 라디오 방송에서 이주민은 방송할 때만큼은 주인공이 된다. 녹음실의 고요 속에서 오롯이 자신의 이야기만이 마이크를 통해 전파를 타고, 반경 10km 가청지역에 89.1 주파수를 맞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 흔하고 익숙해진 영상 중심의 유튜브와 다르게 라디오는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지만, 온전히 목소리와 줄거리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매체라는 점에서 하나의 문학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주 경험과 책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는

삶을 서사로 재구성해야 하고, 이것을 이야기책과 연결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는 온갖 비유와 은유가 작동해야 한다.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성서공동체FM은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본 배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라이플러리(Liflary) 라디오는 이주 여성분들과 함께 각 나라의 그림책을 소개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토크를 통해서 풀어가는 1시간짜리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제작 교육을 10회차 진행하고 수료자부터 해서 그해 12월까지 꾸준히 게스트를 초대해서 방송하는 걸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복지관 안에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일단 그 부분이 참 놀라웠고요. 그 도서관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자기 나라 동화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최원혜 강사)

2.2. 제1기(2020년~2022년) : 성취감을 자극하는 재미 요소를 강조한 교육

2020년에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개별사업으로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성서공단의 지역적 특성, 축적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의 역량과 이를 추진해 온 지역 내 네트워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혁신적 분위기와 리더십 등은 ‘꿈틀꿈틀 레고레고’ 프로그램의 토양이 되었지만, 씨앗을 틔우는 작업은 실무자의 몫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개별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한 현실에서 첫째 프로그램을 맞이하였고, 개별사업 운영 3년간은 팬데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속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주된 방향은 ‘아이들의 성취감을 자극할 수 있는 재미 요소를 강조한 교육’으로 수립된다.

2.2.1. 제1기 프로그램의 구성

2020년 첫째 본 교육 프로그램은 레고를 활용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이를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기획한 것이었으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이를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하는 프로그램은 당시의 비대면 중심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도 적합한 것이었다. 1년 차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3학년과 4학년 15명을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5]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창작 스튜디오 공간

2년 차인 2021년에는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골자는 유지하되, 기존에 관계망을 갖고 있던 다문화 교육 전문 사회적기업인 (주)ODS가 문화 다양성 교육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성서지역 이주민의 출신 국가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문화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강의하고 이를 레고 스톱모션의 스토

리 제작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1년 차 프로그램에서는 미리 준비된 스토리를 아이들이 스톱모션 방식을 활용해 레고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었다면, 2년 차 프로그램에서는 스토리를 창작하는 활동으로 무게를 옮겨가게 된다. 이 시기에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부담으로 아이들 전용 창작공간을 마련하였다.

3년 차인 2022년에는 2년 차의 프로그램을 유지 발전하는 것으로 운영되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는 3가지의 핵심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참여 아동의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림 6]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사례

2.2.2.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기획하기

아이들이 흥미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른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엿보인다. 문화 다양성이나 차별 금지 등은 규범적이며 당위적으로 타당하기에 그것을 교육할 때 아이들은 마치 어른들이 훈계하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아이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명제임에도

이것이 그대로 언설될 때, 아이들은 이를 고루한 도덕적 이야기로 여기게 되고, 그 자체로 차별의 행위를 금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와 규범에서 벗어나 아이들 스스로 프로그램에 대해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실제 이는 학습이론에서 동기(motivation)의 구성요소를 간파한 것이기도 하다. 동기잠재점수(motivating potential score, MPS)⁵의 개념적 틀에서 동기의 핵심 요소는 작업 자율성(task autonomy)이라고 설명한다. MPS는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때 활용되는 기술의 다양성(skill variety), 작업의 정체성(task identity), 작업 중요성(task significance), 그리고 작업 자율성, 작업 피드백(task feedback)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Turner, Barling & Zacharatos, 2002)⁶. 아이들에게 동기가 가장 높은 활동을 묻는다면, 아마도 놀이나 게임이라고 답할 것이다. 이는 아이들이 놀이나 게임을 할 때 활용되는 기술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행할 때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문화 다양성 교육의 목적은 규범적이지만, 그 규범성으로 인해 아이들이 통제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자체로 교육의 동기는 상실되게 된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고’,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아이들에게 묻고 그것을 준비하였다.

5 동기잠재점수(MPS)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MPS = [(기술 다양성) + (작업 정체성) + (작업 중요성) / 3] \times (작업 자율성) \times (작업 피드백)$ 여기에서 기술 다양성, 작업 정체성, 작업 중요성의 평균값이 MPS에 영향을 미치지만, 작업 자율성과 작업 피드백은 하나라도 0이 되면 MPS는 0이 된다. 즉, 작업의 자율성과 피드백은 동기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작업 자율성이란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학습자가 시킨 것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해 해결할 수 있는 재량의 수준을 의미하고, 피드백이란 교육자가 학습자에게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기 강화를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프로그램은 기획 초기 단계에서 참여 아동의 눈높이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Turner, N., Barling, J., & Zacharatos, A. (2002). Positive psychology at work.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715-728).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사업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즐겁고, 복지관에 오고 싶고, 내가 변화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같이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기획했던 게 어른들 눈높이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면 정말 너희들 변할 거야. 좋을 거야.”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이걸 하면 변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2.2.3.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최한구 과장은 이전에 복지관의 방과후 공부방 프로그램과 멘토링 사업을 담당했는데, 당시 일지를 살펴보면 아이들의 진로 희망으로 자주 포착되던 것이 유튜버 크리에이터였다고 한다.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일회적 교육을 넘어 몰입형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는 하나의 힌트가 되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업, 그것을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과 접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저희도 공부방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멘토링 사업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멘토링 일지 같은 것을 제가 분석해 보면 커서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관찰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한번 접목해 보자 이런 생각이 첫 번째 있었고. (중략) 매년 교육부에서 나오는 진로 조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1위부터 5위가 다 똑같았어요. 운동선수, 과학자하고 선생님. 계속 순위만 바뀌다가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게 2019년에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걸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지?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하고 싶어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2.2.4. 아이들의 자기주도성을 강조하기

첫 번째 신청서에서 강조되었던 교육성과 중 하나는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이었다.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할 핵심적인 목표는 ‘문화 다양성의 수용’이라는 것이지만, 이러한 의도된 성과 이외에도 아이들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은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스스로 조작해 보고, 그 성과인 콘텐츠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성취감을 제공한다. 그 성취감의 누적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며, 이는 다른 일상의 자기 주도성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한다. 이는 1년 차 사업에서부터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지향했던 가치였다.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찾아본 연구에서 미디어 콘텐츠 활동이 아이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훨씬 더 빠르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교육받는 방식보다 자기가 주도하고 몰입하는 방식에서 태도나 인식의 변화가 잘 나타난다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를 접목해서 첫 번째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2.2.5. 재미 요소를 강조하기

프로그램에서 재미와 흥미 요소, 그리고 참여자가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강조된 것은 일관되게 확인된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김재훈 사회복지사는 2023년에 입사하여 약 1년 남짓 된 새내기 사회복지사다. 그는 최한구 과장과 회의를 통해 얻게 된 교훈 중 하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제공자의 입장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과연 그것을 하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동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은 이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이 어땠는지 물음에 달뜬 목소리로 “평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재밌어요.”라고 답하고 있었다.

과장님과 아이디어 회의할 때 인상깊었던 게 과장님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 재미가 있어야지 참여한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흥미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변화한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실 때도 ‘그 사람이 하고 싶을까?’ 그런 것을 꼭 생각해 보고 계획해 보라고.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재훈 사회복지사)

확실히 평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재미있어요. (손지은 학생)

2.2.6. 레고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춘 첫 프로그램의 기획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기획된 본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과 재미를 강조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왜 여러 놀이와 문화 콘텐츠 창작 활동으로 ‘레고’가 선정된 것일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 꼭 레고가 아니어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다양성 교육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역시 다양한 콘텐츠로 접목될 가능성이 있다. 다양성 교육, 유튜브, 그리고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프

로그램의 3가지가 조합된 것은 레고가 갖는 창의성에 주목했던 것에 기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자인 최한구 과장은 아이들의 관점에서 좋아할 만한 것을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레고라는 완구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수많은 변이가 가능하고, 조작을 통해 유튜브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로서 레고를 바라본 것이다. 그의 표현대로 좀 더 상상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재로 레고를 선택한 것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창작 활동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완구이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레고를 한번 접목해 보면 아이들이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을 풍부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2.2.7. 코로나19 상황속 온라인 도구 활용 역량의 축적

프로그램 개시 첫해였던 2020년은 성서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배움터 운영 기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다. 2020년 첫해 본 프로그램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보면 프로그램 대부분을 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음이 확인된다. 사업이 시작되던 2020년 3월 무렵, 대구는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변화에 적응해야 했다. 경상북도는 2020년 3월 9일부터 2주간 도내의 사회복지시설 581곳을 대상으로 코호트 의무 격리 조치를 하는 한편, 대구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2주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2020년 2월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던 경북 청도대남병원발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이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생활시설이 아니기에 격리 조치를 해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다중이용시설로서 서비스 이용

자들이 모이는 것은 막아야 했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께 모여서 배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상황에서 그 대처는 좀 더 기민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 7]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온라인의 교육환경, 즉 직접적 접촉을 하지 않으면서도 좀 더 교육적 성과를 내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했던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다수의 배움터가 그러하였듯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영역이다. 그러나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배운 것을 아이들이

이 직접 수행해 보는 방식으로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메타버스 프로그램은 2020년 이전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미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그 축적된 경험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롭게 발휘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문화를 학습했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그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세웠다.

조금 더 발 빠르게 온라인 환경에서의 프로그램이 이어질 수 있는 역량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라든지, 플랫폼 이용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고……. (중략) 어떻게 보면 대면의 관계가 온라인으로 될 뿐이지 관계는 계속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진다는 걸 인식하고 온라인 환경에서도 강점으로, 또 학습 효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접목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세계시민교육에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울 때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그날 배웠던 몽골의 마을을 메타버스 빌드업이라는 기능으로 꾸며보기도 하고……. 플랫폼마다 주는 강점을 가지고 사업들이 그런 의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코로나19 같은 특수한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걸 온라인 환경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으로 접목할 수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다문화가족도서관 이혜인 사서)

2.3. 제2기(2023~2024년) : 지역사회로 성과를 확장하기

제2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2023년부터 성과를 확장하기 위해 개별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확대된다. 공동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2개의 지역아동센터(본영지역아동센터, 희락지역아동센터)가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었고, 2024년에는 기존의 2개 지역아동센터에 더하여 1개의 지역아동센터(한결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인근의 대구죽전초등학교가 포함되어 4개의 공동사업 기관으로 확장된다. 공동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기존의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졌다면, 2024년에는 기존의 레고 스톱모션뿐만 아니라 샌드아트 영상 제작, 가상현실 VR 프로그램 제작,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제작 등 3가지의 주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프로그램의 가짓수, 참여기관 수 등이 양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2.3.1.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한 새로운 도전

모든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에 그러하듯 프로그램 중반부 이후, 전문위원이 배움터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참관 및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현장방문 컨설팅이 진행된다. 현장방문 컨설팅은 사업의 중간 모니터링이라는 점에서 평가의 성격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무게를 두는 것은 사업 운영 기관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며, 나아가 이 프로그램의 발전적인 방향을 상호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배움터 사업의 운영자는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다. 하지만 배움터 전문위원에게 이 프로그램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취지를 한 번 더 성찰하고,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극을 얻게 된다. 컨설팅 전문위원의 역할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로서 조언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터 기관 담당자에게 새로운 긍정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배움터가 더욱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8] 2024년 성서종합사회복지관
현장방문 컨설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별 배움터 기관으로 3년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2022년부터 이를 공동사업으로 확장해야 할지, 혹은 이 사업을 자체 사업화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받은

현장방문 컨설팅은 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컨설팅 위원은 복지관에 공동사업을 통해 문화 콘텐츠를 확산하고 지역사회로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의 비전을 제시하며, 그 자체가 ‘가슴 뛰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최한구 과장은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교육적 성과라는 점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해가 지날수록 사업의 논리에 매몰되어 프로그램의 운영 측면에서만 고민했던 점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컨설팅 위원의 이러한 말에 최한구 과장은 ‘가슴이 함께 뛰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영상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달서구에서, 대구에서, 한국에서 이 영상을 통해 다름이 가치가 되는 그러한 비전을 새롭게 주목하게 되었다고 한다. 개별사업에서 진행하는 영상 제작으로 그칠 수 있지만, 여러 참여기관으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지역 내에서도 그 성과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그는 다양성 영화제와 같은 지역의 축제를 열어보는 것, 그리고 지역 내에서 아이들의 독립된 창작공간을 만들어보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컨설팅할 때 전문위원께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아이들의 창작물을 가지고 마을이 바뀌고,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 내는 콘텐츠들이 마을 구석구석에서 펼쳐지고, 좋은 가치가 확산되면, 이런 게 굉장히 가슴 뛰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레고 스톱모션을 하고 있었으니까, “대구시 방방곡곡에서 이 영상을 사람들이 보고, 또 달서구에서 다양성 영화제 같은 걸 기획해 개최하는 것을 상상해 보고, 마을 사람들도 같이 그 영상을 모여서 보는 것을 상상하니 가슴 뛰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도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가 변화시켜 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 가지고 공동사업도 프로그램 공유형이 있고 교육과제 발굴형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한번 공유해보는 형태로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공동사업으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성서종합사회복지관

2.3.2. 가치와 방향성을 공유하는 공동사업의 추진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노하우를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동사업 참여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문화 다양성의 가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자기 주도성을 존중할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 운영의 편의성만 고려한다면 근처 가까운 곳과 협력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사업을 확장할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은 무엇보다 가치와 방향성을 공유하는지였다. 이 점은 공동사업으로 확장할길 희망하는 여러 배움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사업 운영의 현실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프로그램의 성과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여러 배움터가 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야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이 커진다.

저희가 사업을 제안했을 때 가까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하면 제일 편하거든요. 걸어서 다니고 하기에.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먼 지역과 하기로 한 건데, 그건 협력 기관의 상황, 그리고 그간 교류했던 것들이 잘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면접을 통해 인권이나 다양성 등의 방향에 대한 동의를 확인했고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2.3.3. 제2기 프로그램의 구성

이렇게 구성된 제2기, 공동사업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23년 공동사업 1년 차에는 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되었다. 기본적으로 1년 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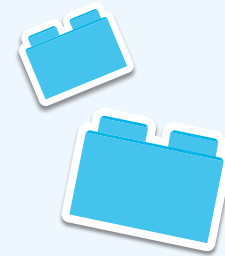
공동사업 기간에는 문화 다양성 교육, 레고 스톱모션 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의 3가지 기본 프로그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고, 배움터 사업에 필수로 포함되는 자치 회의와 봉사활동 등이 추가되는 형식이었다. 당시 45명의 참여 아동이 모두 함께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있었다.

2024년 공동사업 2년 차에는 2개의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한결지역아동센터와 대구죽전초등학교가 포함되어 4개의 참여기관이 함께하였다. 2024년에는 세계시민교육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의 2개 프로그램은 전체 아동이 참여하도록 구조화하였고, 4개의 참여기관에 각각 4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던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 활동은 대구죽전초등학교에서 수행하고 있고, 신규로 기획된 샌드아트, 가상현실 VR 동극 제작, 보이는 라디오 등은 3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된다. 공동사업 2년 차에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공동사업 참여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될 때 각 담당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하였다.

〈표 1〉 2023년~2024년 공동사업 참여기관과 프로그램 구성

구분	2023년(공동사업 1년 차)	2024년(공동사업 2년 차)
참여기관	• 본영지역아동센터 • 희락지역아동센터	• 본영지역아동센터(지속) • 희락지역아동센터(지속) • 한결지역아동센터(신규) • 대구죽전초등학교(신규)
프로그램 구성	• 문화 다양성 교육(전체) • 레고 스톱모션 교육(전체) • 세계시민교육(전체)	• 세계시민 토래교육(전체) •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전체) • 샌드아트 영상 메이커스(희락지역아동센터) • 가상현실 VR 동극 메이커스(한결지역아동센터) •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메이커스(대구죽전초등학교) •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메이커스(본영지역아동센터)

출처 : 2023년~2024년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실행계획서(재구성)



03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요인, 어려움, 그리고 대안

- 3.1.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요인
- 3.2. 프로그램의 성과를 가로막는 어려움
- 3.3.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3.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요인, 어려움, 그리고 대안

본 프로그램의 발전 과정을 개별사업의 출발 이전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다면, 이 프로그램 성과의 요인은 또한 무엇이었는지, 이 프로그램이 마주하였던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그 대안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요인

프로그램의 성과 요인은 크게 프로그램의 구성적 측면, 교사의 관심, 참여 기관 간의 협력적 소통과 관계, 그리고 리더십 등이 있었다. 이러한 성과 요인은 여타 배움터의 성과 요인과의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새로운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꾸준하고 성실한 농사꾼이 많이 수확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듯, 기본에 충실한 것이 성과의 요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을 충실히 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구성적 측면을 보면, 아이들의 동기를 강화하고, 성취감을 자극하도록 구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앞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일관된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이자 철학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교육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교사의 관심은 이 프로그램 성과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이 훌륭하더라도 교사가 아이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로서 기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아

이들의 성장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사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성과의 핵심 요인이라 하겠다. 셋째, 대표기관과 참여기관 간 적극적 소통으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 것 역시 공동사업의 중요한 성과 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획을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기관의 리더십이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된다.

3.1.1. 참여 학생의 동기강화를 통한 성취감 함양

프로그램의 구성 측면에서 성과 요인을 꼽아보라면, 무엇보다 아이들의 동기 강화를 통해 성취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의 동기 강화를 통해 성취감을 자극하는 요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포레 강사’의 운영이다. 포레 강사란 세계시민교육 등과 같은 강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주 강사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모둠 활동을 하는 경우, 각 모둠에 직접 들어가 아이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선배 아동들을 말한다. 필자가 참관한 프로그램에서는 중국 문화를 주강사가 아이들에게 강의 방식으로 교육한 후, 모둠에서 아이들에게 만들기 활동을 요청하였을 때, 포레 강사가 각 모둠을 다니며 아이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 경험만 많다고 포레 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포레 강사는 주강사와 사전에 강의안을 공유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강의의 구조를 고민하고 논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받는 위치에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 본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 활동이 될 수 있지만, 주강사의 훈련과 지지로 이 포레 강사 아이들은 앞에 서서 동생들을 지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에서 포레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ODS의 윤미애 강사는 이러한 활동이 아이들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적극적인 아동의 경우 스

스로 교육용 PPT를 만들어 갖고 오는 등 적극적인 확장학습 노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학습활동에서 주어진 정보를 기억하고 구조화하며 익히는 것을 넘어 스스로 무언가 창작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요청이 없어도 스스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동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림 9] 또래 강사의 세계시민교육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주입해주고 알려주고 새로운 정보를 넣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왜 이런 차이가 있지?' 이러한 호기심을 갖도록 하고 스스로 찾고 만드는 것, 그게 어찌 보면 교육의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는 또래 강사라는 제도를 해서, 아이들 중에서 강사 역할을 할 친구들을 뽑아서 강사가 되기 위한 장시간의 교육을 하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은 이제 자기가 PPT도 만들려고 하고, 그런 눈에 띄는 친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아이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세계시민포래교육 윤미애 강사)

레고와 영상 콘텐츠의 조합 구성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주고 있기

도 하다. 레고 블록을 활용해 다양한 조합을 구성하여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레고를 조금씩 조작하여 촬영함으로써 하나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그것은 아이들이 만든 세계를 스스로 움직여보는 경험을 선사한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한 컷 한 컷 조심스럽게 촬영하고 그것을 이어 붙여 동영상으로 만드는 활동인데, 아이들은 레고를 만들고, 매우 세심하게 조립한 레고를 움직이며 영상을 찍어보고, 그것이 눈앞에서 곧바로 결과물로 확인될 때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는 ㈜ODS 윤미애 강사는 설명하고 있었다.

레고로 스톱모션을 만들어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시민포래교육 윤미애 강사)

영상을 활용한 봉사활동 역시 아이들의 성취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이었다.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사업에서 봉사활동은 필수활동이지만, 이러한 봉사활동이 내실 있게 아이들의 사회적인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정은주 강사는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강사로 영상 교육을 진행한 경력이 있다. 그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여타 학교의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다른 점으로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서 영상을 상영할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로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에서 상영된 적도 있었고, 아이들은 이를 무척 기뻐했다. 자신이 작업한 영상을 교실에서 몇몇 아이들과 보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하나의 창작 콘텐츠로 대중에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점이라고 보았다.

아이들이 이 영상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만든 영상을 사람들

에게 보여주고 하는 거죠. 사실 영상을 만들고 나면 어디에 보여줄 일이 잘 없거든요? 학교에서 하다 보면 그냥 자기들끼리 재밌다고 보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기들끼리 수업 시간에 상영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요. 2023년 작업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레고랜드에서도 상영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뭔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했던 작업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성취감을 더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정은주 강사\)](#)

3.1.2.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교사들의 깊은 관심

대구죽전초등학교 송경숙 상담복지사는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취약한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교육소의 아동을 지원하는 학교의 사회복지사로서 본 프로그램 참여기관으로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손을 잡았다고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교육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우리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아이들은 주로 경제력, 그러니까 교육비 기준으로 상위 80% 이하이거나 법정 저소득층이거나 그 외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관심군 학생들이거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예요. 관심군에 속하는 아이들이 저희 대상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대부분 취약계층 아동이라고 볼 수 있죠. [\(대구죽전초등학교 송경숙 상담복지사\)](#)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윤미애 강사는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교강사

회의에서 아이의 장점과 변화를 공유하면서 깊은 관심을 표현하였던 것이 아이를 변화시켰던 단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아이들의 변화를 주의하여 관찰하고 이를 피드백하는 것은 아이 스스로 변화의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원래 빨리 지치고 수업 태도가 다소 좋지 않았던 아이가 교사들의 관심으로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변화한 것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적극적 관심에 기초한 것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보였어요. 좋아하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력 있게 다가가는 부분이 보였는데, 원래 이 아이의 단점이 빨리 지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와 OO이! 진짜 잘하는 애”라고 하니깐 다들 OO의 재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애가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눈을 맞추게 되었고, 수업 태도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적극적으로 변했고요. [\(세계시민도래교육 윤미애 강사\)](#)

3.1.3. 대표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개별사업으로 진행하다가 2023년에는 공동사업으로 2개의 참여기관, 그리고 2024년에는 4개의 참여기관으로 확장하면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수행하고, 4개의 참여기관에서 직접 메이커스 활동(샌드아트, VR 동극,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이 수행되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복지관은 4개의 참여 기관에 최한구 과장을 비롯하여 이승현, 김재훈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해인 사서 등 4명을 각각 1명씩 배치하였다. 대표기관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

여 아이들의 기초적 소양을 쌓도록 하고, 4개 각 참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대표기관의 각 참여기관 담당자들은 매번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참여기관에 가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참관하며 아이들과의 관계를 다지고 있었다. 구조화되고 공식적인 교강사 회의가 존재하나, 상시로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이 접촉할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상호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고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최한구 과장은 연간 거의 150회가량 서로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만큼 적극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저희는 일단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는 다 하고요. 대표기관인 저희가 아이들 커나가는 이야기, 또 변화가 관찰됐다는 이야기부터 이런 부분들 다 교감하고 있어요. 협의체 이런 것도 공식적인 회의로 있지만, 이렇게 공동사업 기관들이 일 년에 거의 150번 정도를 만나면서 아이들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몇 명 왔는지 실적 얘기해 주세요.” 하고 2개월 뒤에 만나도 상관없거든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그림 10] 실무자 학습동아리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재훈, 이승현 사회복지사는 젊은 남자 사회복지사다. 특히 복지관에 처음으로 취업해 1년이 채 되지 않은 아직 앳된 김재훈 사회복지사는 매번 참여기관에 방문해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승현 사회복지사 역시 매번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과 친밀해지고, 또한 아이들의 변화도 더 잘 관찰할 수 있게 되었

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구죽전초등학교의 송경숙 상담복지사는 막연히 이 프로그램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대표기관인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니 더욱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장에서 애들이랑 말 한마디씩 하니깐 더 편해지고, 더 많은 걸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역시 많이 보면 그만큼 더 가까워지나 봐요. 직접 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재훈 사회복지사)

그냥 가끔 보면 아이들은 “이 아저씨 뭐지?” 이럴 수 있죠. 그래도 계속 가니까 아이들도 얼굴이 낮이 익으니 먼저 인사도 해주고 아는 척 하면서 말도 걸어주고 그러거든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이승현 사회복지사)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기관에서 원체 또 잘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니까 힘이 나죠. (대구죽전초등학교 송경숙 상담복지사)

3.1.4. 새로운 도전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리더십

성과의 요인에는 새로운 기획을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기관의 리더십도 있었다. 긍정적 조직문화는 성과의 기반이다(최권호, 2019)⁷⁾. Grandey et

7 최권호(2019). 사회복지사의 직무변영감 : 생존을 넘어서는 변영. 사회복지조사연구, 63, 93-127.

al.(2012)⁸⁾은 안정감이 있는 조직문화를 ‘진정성 있는 분위기(climate of authenticity)’라고 표현하는데,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조직이 이를 지원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자유로운 탐색을 가능케 하며, 실무자는 ‘진정으로 자기됨(just be yourself)’을 느끼고, 더욱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문화 다양성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교육으로 엮는 것은 당장 눈앞에 직면한 교육적 필요성과 거리가 멀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주민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을 끌어올린다거나, 문해력이나 어휘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활동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쉽고, 비교적 다양한 검증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안전할 수 있다. 그러나 장난감처럼 보이는 레고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수행하는 시도는 얼핏 보기에 쉽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김병우 관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하였다. 김병우 관장은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비교적 늦은 10대에 들어서야 교육을 받게 된 경험이 있었고, 다양한 시도 속에서 시행착오와 성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배경 아동과 정주 아동의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시도와 이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라는 도구를 활용한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준 것이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이해인 사서는 기관에서 열린 자세로 새로운 시도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이러한 기획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 관장님도 장애를 갖고 경험했던 것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 주시고, 저희가 기획하는 것들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8 Grandey, A., Foo, S. C., Groth, M., & Goodwin, R. E. (2012). Free to be you and me: a climate of authenticity alleviates burnout from emotional labo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7(1), 1-14.



[그림 11] 공동사업 수행기관 업무협약(좌), 김병우 관장과 아동의 초코우유 간담회(우)

이거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면 보통은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고 기관에서도 해주시고 좀 더 많이 수용해 주세요. 기관에서도 잘 받아주시는 거죠. 기관에서 막 다 눌러 놓으면 못하죠. 사실 '저 장난감, 레고로 뭘 하나? 그게 다양성이라는게 진짜 말이 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살려서 하고 있으니까…….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다문화가족도서관 이해인 사서)

3.2. 프로그램의 성과를 가로막는 어려움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가로막는 어려움도 확인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논의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구성과 투입이 있더라도 늘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여러 배움터가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프로그램의 관계자들은 공동사업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점, 참여기관의 행정 체계상 관리의 어려움, 아동의 비자발성과 낮은 프로그램 이해도에 따른 어려움, 그리고 문화 다양성이라는 주제 하나만으로 프로그램 전반을 끌어가기 어려운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3.2.1. 공동사업으로 인한 업무의 증가

개별사업을 운영할 때보다 공동사업을 운영할 때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여러 공동사업의 대표기관이 그러하듯, 본 프로그램의 대표기관인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최한구 과장은 여러 기관 사람들이 회의할 일정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결국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인내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구죽전초등학교 송경숙 상담복지사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차량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매번 외부에 가야 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였음에도 생각보다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복지관은 본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실무자에게 위임하고 지원하는 상황이지만, 초등학교의 관료적 조직 특성상 출장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고, 눈치 보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행정적 과업은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이러한 것이 본 프로그램의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배움터에서 공동사업을 운영할 때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의 입장 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상호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여러 단체가 있으면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니까……. 초반에 솔직히 요일 정하고 날짜 잡는 자체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에너지가 너무 많이 여기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1주일에 1번씩 투자해야 하고, 내가 혼자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아이들 10여 명 매번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벌써 3일을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것 같고, 또 이 일정 때문에 다른 일정 소화하는 데도 조금 방해가 되고……. (중략) 제가 이 일로 출장이 잦다 보니, ‘네가 웬 출장이 이렇게 많냐? 이 프로그램 출장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위에서 하시고. (대구죽전초등학교 송경숙 상담복지사)

3.2.2. 소통의 어려움

이 프로그램의 성과 요소로 대표기관에서는 150회에 달할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기관과 소통한다고 하였지만,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참여기관이 깊이 있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 등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의 행정체계와 배움터 사업의 운영 일정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관리의 어려움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기관인 다른 3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러한 관리의 어려움이 포착되지는 않는데, 학교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모집하고 인솔하여 외출하는 등의 상황은 늘 부담이 따르는 일이다. 송경숙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라고 말한 것은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참여기관의 의사를 무시하였다는 뜻이 아니었다. 기획 단계에서 스케줄을 세팅할 때 참여기관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2024년 처음 공동사업으로 참여한 대구죽전초등학교의 경우, 이미 지난 4년 가까이 운영되던 프로그램에 합류한 것이기에 일정이나 프로그램의 구성에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막상 프로그램을 보니 모집 기간부터 학교의 일정과 맞지 않았다. 학교는 개학 시기부터 이미 방과후 프로그램 등의 모집이 종결되는데, 재단 배움터 사업은 4~5월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에 상시로 아이들이 모여 있는 지역아

동센터와는 달리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처럼 본 배움터 사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미 방과후 프로그램 신청과 배치가 완료된 상황에서 주 1회 학교에서 방과후 시간에 배움터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는 아이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점에서 학교와 복지관의 연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배움터 사업의 운영은 좋은 전략이다. 그러나 학교의 상황과 학사일정 등을 상호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다음 연도 기획 단계부터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상호 논의하여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올해 이런 프로그램이라고는 했지만, 저희가 사실 완벽하게 알고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에서도.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다 다르니까 일정도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는 거니까……. 물론 어느 요일이 제일 좋을지 논의는 했어요. 아이들을 모집해야 하니깐. (중략) 사실 10명을 모집하는게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지관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보다 늦게 아이들을 모집해요. 그러다 보니 이미 아이들은 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신청했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 갔거나……. 그래서 시간이 비어있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또 1~2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지속 참여해야 하는데, 순수하게 수요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모집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대구죽전초등학교 송경숙 교육복지사)

3.2.3. 참여 학생들의 낮은 동기와 프로그램 이해도

아이들의 낮은 동기와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도 성과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성서공동체FM의 최원혜 강사가 말한 내용을 모든 아이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나 성서공동체FM에서 일하며 볼 때, 여타 아이들보다

취약계층 아동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기회가 많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 아이들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정작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가 낮은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먼저 “하기 싫어요.”라고 할 땐 교강사의 힘도 빠지는 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서공동체FM의 교강사들은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대한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최대한 시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간청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의존적으로 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고, 센터에서는 많은 것들이 제공되잖아요. (아이들이 성서공동체FM에) 왔을 때 사실 저희도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런 교육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비슷한 교육이겠지…….’ 라는 분위기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브레이킹 시간 할 땐 자기소개를 색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 때는 잘 참여를 했는데 그 다음 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엔 라디오 할 거야.’ 아니면 ‘이제부터 영상도 같이 배워 볼 거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기 싫어요.’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네가 싫으면 이걸 안 해도 돼. 근데 이거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끊임없이 저희는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봐요.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저희도 강제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최원혜 강사)

저도 6학년 딸을 키우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애들이 하는데……. 처음에 제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많은 콘텐츠가 사회복지, 시혜적 느낌

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서현정 보조강사)

한편, 아이들의 문화 다양성 수용성이 낮은 것도 성과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물론 아이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문화 수용성이 증진되었으나, 프로그램 착수 초기에는 차별적 발언이 서슴지 않고 이뤄지기도 하였다.

발대식을 하는데 중국에서 온 친구한테 초등학생 아이들이 “너랑 나는 차이나”, “이러면 차이나” 라며 놀리는데……. 갑자기 또 다른 아이가 “야! 너, 코로나지?” 이러는 거예요. 2020년에는 코로나19를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다양성을 가치로 프로그램을 시작한 첫날 “너 코로나?” 이렇게 시작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온 이 친구가 “난 코로나, 우리나라 고향 나라에서 나온 건 인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구나.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핵심이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레고를 만드는 것보다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창작하는 것인데, 아이들은 ‘레고’라는 완구에 꽂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현상도 있었다.

레고를 다 만들었다고 자기는 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선생님! 저는 레고 다 해서 재미가 없어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거든요. 스톱모션이 메인인데 아이들은 레고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

어서, 스톱모션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인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정은주 강사)

3.2.4. 문화 다양성을 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필요성

본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목표는 아이들의 문화 수용성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문화 다양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문화 다양성이라는 주제 하나만으로 1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한계도 있었다. 아이들은 문화 다양성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 관심이 있고, 문화 다양성은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소개하며 서로 나누는 것으로 모든 교육이 구성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그 차별에 저항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성서공동체FM 최원혜 강사는 ‘이거 하나’, 즉 문화 다양성만으로 아이들과 1년간의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초창기에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들던 시기를 넘어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 참여기관으로 확장하며 각자의 방향성과 철학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처음에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진행을 해보니, 아이들과 함께하려면 이거 하나 (문화 다양성)만 들고 가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씩 변경했었어요. 초반에는 선생님께서 라디오를 진행해 주셨던 것처럼 문화 다양성, 즉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보고 이걸 드라마로 엮어서 라디오 콘텐츠를 하나 만드는……. 그리고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면 그 안에 아동 인권도 있을 거고, 문화 감수성도 있을 거고, 장애인 인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거에 국한되

지 않고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걸 섞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캠페인송 만들 때는 아이들의 경험을 가지고 왔어요. ‘너희가 들었을 때 기분 나빴던 말이 뭐야? 너희를 폄하하는 말인 것 같은 게 왜 기분 나빴어? 이게 왜 너희가 기분 나빴을까?’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경험과 행동을 적어보게 하고 그 걸로 짧은 콘텐츠를 만들었죠.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최원혜 강사\)](#)

3.3.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이들의 변화에 주목하고 더욱 깊이 관심을 두는 것, 담당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 아이들에게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하는 것 등의 전략이 활용되었다.

3.3.1. 아이들의 변화에 주목하기 : 햄 샌드위치 14개와 야채 샌드위치 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대안은 결국 아이들의 변화에 주목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 핵심은 관찰일지를 통해 아이들의 변화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숙지하며, 이후의 교육계획에 순환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은 관찰일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어찌 보면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사건도 아이들의 변화 과정으로 포착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은 교육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한번은 아이들에게 간식을 정하도록 했더니, 15명의 간식 중에서 14개는 햄 샌드위치를, 그리고 다른 1개는 야채 샌드위치로 사 온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이유인즉슨, 파키스탄 출신 아동이 있었는데 라마단 기간에는 육류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동료 아이들이 미리 알고 그 아이를 배려하여 야채 샌드위치로 주문한 것이다. 사소하게 넘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문화 수용성에 있어 중요한 성과지표이다.

관찰일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떤 수치가 변했다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하는 농담이어도 좋으니, 순간을 기억했다가 일지를 충실하게 작성하자는 것이 공유되었었고……. 근데 우리가 다양한 친구의 문화라든지 모국의 환경을 이해하는 게 제일 먼저 되고 존중하는 마음까지도 이어져야 하잖아요? 처음에 자치회를 통해서 “너희들 간식 뭐 먹을지 한번 정해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영수증을 저한테 가져오더라고요. 우리 애들 중에 파키스탄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영수증을 보니까 14개는 고기가 들어간 햄 샌드위치였고 하나는 야채 들어간 샌드위치를 아이들이 스스로 주문했더라고요. 제가 “이거 서류 만들기 귀찮게 하나로 통일하지, 왜 2개로 나눠서 주문했니?” 이렇게 물어보니, 아이들이 시나리오를 같이 짜면서 파키스탄의 라마단 기간에는 육류를 못 먹는다는 것을 알고 햄 14개와 야채 1개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교강사의 적절한 피드백도 아이들의 성장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아이들이 자신의 장점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아이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윤미애 강사는 설명하고 있었다. 이것이 실제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있었다.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장점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잘 모르고 있죠, 그걸 어떻게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는 옆에서

계신 선생님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칭찬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계시민포래교육 윤미애 강사\)](#)

간식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도 아이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다. 아이들에게 매번 새로운 간식을 선사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교사가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또한 영양적으로도 균형 있는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탕후루를 제공하려 해도, 영양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복지관에서 거절했던 것도 좋은 일화다. 또한, 한창 포켓몬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유행할 때, 복지관 직원들이 어렵게 포켓몬 떡을 찾아낸 것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된 경험이었다. 대구죽전초등학교 송경숙 상담복지사도 무엇보다 간식이 매번 바뀌는 것이 주변 아이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간식 하나하나 선정하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림 12] 아이들을 위해 직원들이 어렵게 구한 포켓몬 떡

어떻게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고, 저희가 교육하는 법에 있어서도 ‘애들이 뭘 하면 재미있을까?’ 이런 걸 항상 고민하거든요. 매번 간식도 다르게 주려고 해요. 저희는 정말 고민이거든요. 아이들이 뭘 좋아할지 고민하면서

아이들의 취향에 맞게 매주 바뀌서 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중략) 그러니까 간식에 대한 애들의 선호도 생겨서 이것도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중략) 내부 검토도 열심히 해요. 과일이면 과일,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으로 구성해서 촘촘한 그런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많이 신경썼던 것 같아요. 포켓몬 유행할 때는 편의점 가서 저희가 줄 서서 구하기도 하고…….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애들이 ‘되게 신청 잘했네.’라고 느끼는 게, 첫 번째 이유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간식이예요. 끝나고 간식을 받아 가는데 엄청 뿌듯해하고……. 옆 친구가 봤을 때 ‘어! 너 이런 간식 받았네?’ (중략) 제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에 비하면 간식이 퀄리티가……. [\(대구죽전초등학교 송경숙 교육복지사\)](#)

내가 좋아하는 수업을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다.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면 함께 방법을 찾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여 학생의 성장일지 중 -



[그림 13] 참여 학생의 성장 일지

3.3.2. 담당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권한 위임은 늘 조직문화의 핵심적인 성과 요소임에도 쉽지 않다. 기관장이나 책임자가 실무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에 참여기관을 4개(대구죽전초등학교, 희락·본영·한결지역아동센터)로 확대하며, 4년 차까지 프로그램을 담당해 오던 최한구 과장 1인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이해인 사서, 이승현 사회복지사, 김재훈 사회복지사 등 3명을 추가로 본 프로그램의 담당자로 지정하고, 4명이 각각 4개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역할을 하게 된다. 직책으로는 과장과 실무자의 입장이나, 각 사업의 추진에 있어 실무자들은 본인이 책임과 재량을 갖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도록 구조화했다. 그렇기에 각 참여기관에서 실무자에게 말하면 해결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더욱 유연하게 발휘되었다. 최한구 과장은 이를 방송국의 PD, 즉 예술적 속성에 빗댄다. 일일이 지시하는 관료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1인 PD와 같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실무자가 개별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일궈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한 것이 중요했다고 말한다.

저는 관장으로서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다 되었으니 전문적인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너무 관여를, 간섭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큰 꼭지만 달아주고 생각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면 충분히 좋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책임은 관장이 져야죠.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병우 관장)

일단 일차적으로 센터 담당자와 그 센터끼리 조율하고, 그 내용을 저희 안에서 공유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니까……. 일단, 센터별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각 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복지관에서는)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해 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니 센터들에서도 담당자에게 얘기하면 뭔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이승현 사회복지사)

저희가 하는 일이 저는 PD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송 만드는 PD! 어떻게 보면 PD도 “그냥 알아서 찍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PD들도 시청자들이 행복하게 즐거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도 아동을 위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았어요. 디테일한 스토리들, 캐릭터를 다 캐치하는 PD가 좋은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아이들에게 일어난 에피소드나 거기서 일어난 역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계속해서 캐치하면서 커가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3.3.3. 명확한 규칙과 단호함의 필요성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더라도 분명한 원칙은 필요하다. 온정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와 원칙을 지켜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교강사들은 아이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때와 교육적 성과를 위해 단호해야 할 때를 구분하였다.

여자아이들이 끼리끼리 다니는 성향이 아주 큰 경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이

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무리지어 오기도 하고 그런 데 익숙해진 아이들이 저희한테 왔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섞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서현정 보조강사)



04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 4.1. 참여 아동의 성장과 변화
- 4.2. 교강사의 성장과 변화

4.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아동 측면, 교강사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이들은 자신의 활동에서 점차 숙련성과 자기주도성을 갖게 되었고, 협동작업을 통해 배려심을 갖게 되며 하나의 팀으로 응집하게 되었다. 자신감과 자부심, 특히 자신의 이주배경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문화창작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문화다양성의 수준이 높아지며 타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 참여 아동의 성장과 변화

4.1.1. 숙련을 통한 즐거움 배양

프로그램 참여 아동은 자신의 활동에서 숙련성을 갖게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아동은 레고라는 것이 상상하는 대로 조각이 가능하고, 만든 레고 창작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것 그 자체의 흥미와 몰입을 경험하고 있었다. 성서공동체FM의 서현정 PD는 아이들에게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제작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본을 읽기만 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며 애드립을 넣고, 완벽하지 않은 대본임에도 키워드 몇 개를 갖고 실시간 라이브처럼 녹음방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방송 대본을 만드는 것, 수업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를 어려워하다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지고, 라디오를 ‘놀이터’처럼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보며 아이들에게 이러한 활동이 하나의 ‘습

(習)’이 된다고 표현하였다. 말 그대로 숙련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숙련에 이르는 과정은 끈기와 노력이 요구된다. 아이들에게 창작 활동은 일면 즐거운 것이기도 하나,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지구력이 요구된다. 숙련에 이르기 전에는 활동 그 자체가 과제처럼 여겨져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 그것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서현정 PD의 표현에 따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의 삶에서 다른 경험으로도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창작 활동에서 지루함을 견디고 숙련에 이른 경험은 직업에서, 학습 과정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 역량인 것이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재미있었어요. 레고로 공원이랑 사람이랑 상 상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손지은 학생)

읽기만 하다가 한 6개월 지나면서 아이들이 애드립을 넣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나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키워드들만 몇 개 가지고 실시간으로 라이브처럼 녹음 방송을 해요. 그래서 한 2시간 걸렸던 것이 1시간 30분, 1시간으로 줄어들기도 하고요. 사실 아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집중력이 길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 쉬어야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항상 ‘하기 싫으면 나가요 괜찮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아이들이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이 안에서 동화되면서 라디오를 내가 노는 놀이터처럼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2년차 아이들이 그렇게 습(習)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해요.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서현정 보조강사)



[그림 14] 배움이 습(習)이 되는 경험
(좌 : 샌드아트 콘텐츠 창작 활동, 우 :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창작 활동)

4.1.2. 자기주도성의 함양

자기 주도성은 타인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은민, 정은주 강사는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담당하는 자매 강사다. 늘 수업을 함께 진행한다. 두 강사는 지난 2년간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아이들의 변화를 가장 일선에서 본 이들이다. 한 번은 레고가 계획보다 늦게 도착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수업 시간을 조정해야 했는데, 아이들이 레고의 도착 일정을 고려하여 스토리 라인을 스스로 조정하는 것을 보며 자기 주도성을 갖추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정은주 강사는 다른 면에서 자기 주도성을 설명했다. 사실 레고는 비싼 완구이다. 이러한 레고를 갖고 노는 것 자체는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레고를 조립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활동이다. 아주 조금 움직이고, 촬영하고, 다시 움직이는 등의 작업을 반복하고, 촬영한 스틸컷을 이어 붙여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이기에 그 과정 자체는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다. 정은주 강사가 예상한 바와 같이 아이들은 처음에 이 작업을 답답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움직임을 주었을 때 더 완성도 높은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된 후 아이들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림 15] 문화 다양성 주제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창작 활동

저희가 계획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때 레고가 좀 늦게 오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촬영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이 스토리를 거기에 맞추어 직접 바꿔서 촬영하더라고요. 큰 변화였죠.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스스로 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를 깨달았거든요.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정은민 보조강사)

작년에 진행할 때 시간이 부족했는데 아이들이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조금씩 움직여야 하는 게 사실 답답하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씩 움직이는 걸 답답해하고 못 견뎌 하다가 뒤에 가서는 움직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해서 집에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중략) 사진이 영상으로 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찍어냈을 때는 그냥 사진에 불과한데, 연결돼서 보이는 영상이 자연스러운지 똑똑 끊기는지를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세심한 작업을 했을 때 스톱모션 영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걸 아이들도 보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정은주 강사\)](#)

소극적인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달서구다문화가족도서관 이해인 사서는 인상 깊은 한 아이의 사례를 알려주었다. 베트남인 엄마를 둔 청소년기 여자아이였는데, 지난 3년간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거의 참여하지 않고 멀뚱멀뚱 앉아만 있던 아이였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어머니 나라 문화에 더 깊이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또래 강사 활동까지 하게 되었다. 앞서 설명하였듯 또래 강사는 교강사와 함께 교육을 기획하고, 모둠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배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히 보조하는 것을 넘어 직접 자료조사도 해야 한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아이의 변화는 엄마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베트남 출신 엄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며 복지관을 신뢰하게 되었고, 현재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 할 때부터 3년 동안, 작년까지였나? 그 친구가 처음에는 와서 그냥 뚱하니 앉아 있고……. 엄마 나라에 대한 걸 얘기할 때도 ‘모르겠어요. 전 안 할래요.’ 이런 식이었어요. 본인도 본인 엄마 나라의 모국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더 열심히 참여했어요. 참여하면서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올해는 또래 강사로도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중략\)](#) 이 아이의 엄마는 처음에 복지관에 잘

안 오셨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복지관에 다니고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이든, 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이든 참여하세요. 저한테 오셔서 OO이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자기(엄마)한테 자랑도 한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평소에는 공부도 잘 안 하더니, 그 프로그램 하면서 친구들이랑도 소통도 많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번 또래 강사 활동할 때 보니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전에는 자기 엄마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본인이 설명도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다문화가족도서관 이해인 사서\)](#)

또래 강사 활동에 참여 중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는 누군가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생소하고 어색하지만, 이를 통해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게 되었다고 말한다.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강사가 어떻게 이를 운용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지가 성과의 핵심적인 측면으로 보인다. 자칫 평범할 수 있는, 어쩌면 뻔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 교육에서 또래 강사를 활용하고, 이들을 훈련하는 것은 문화 수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기 주도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기제였다.

저희가 지금 중1이고 누굴 가르친다는게 좀 생소한데 다른 애들을 가르치면서 나도 같이 성장해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다가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이랑 비슷하면 그래도 다가가기 쉽잖을까 생각해요. 어른보다는 같은 또래가 더 편하니까. 또래와 같이 상상해 나가며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또래 강사 중학교 1학년 임지연 학생\)](#)

4.1.3. 협동작업을 통한 공동체성의 발현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창작 활동이 팀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대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그러했고, 샌드아트,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VR 동극 등의 모든 활동이 그러하다. 대구죽전초등학교에서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기자처럼 각 아동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역할을 맡기 위해 경쟁하고 다투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양보와 배려를 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하나의 팀으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 1년 차 사회복지사인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재훈 복지사는 희락지역아동센터를 담당했는데, 이곳 아이들 역시 점차 소속감이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본인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내가 이 역할을 하겠다, 아니면 이런 작업을 내가 해야겠다, 이런 게 처음에는 중구난방이었는데, 자기 배역이 부여되고 내가 이 역할을 해야겠다면서 서로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면서 협동하게 되더라고요. (중략) 시나리오 리딩 연습할 때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대사하듯이 리딩 연습하면서 그런 것(협동)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건 네가 담당하자”, “네가 이걸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런 동작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의견도 내면서……. 처음에는 화합되지 않았고 서로 안 친하고 사이가 나빴거나 이럴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팀이야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대구죽전초등학교 송경숙 상담복지사)

지역아동센터에서 느끼는 건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소속감, 이런 게 되게 커졌고, 이제 아이들끼리 하나가 된 팀. 그런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서 아이들끼리도 옛날에는 안 친한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어 누구 안 왔어요?” 하면서, “애 왜 안 오는데?” 이렇게 서로 챙기면서 잘 융화된 팀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재훈 사회복지사)

4.1.4. 심리적 안정감을 통한 자신감 획득



[그림 16] 자신감을 얻는 교육 (좌 : 배움터 탐방 프로그램, 우 : VR 동극 콘텐츠 제작 활동)

심리적 안전함(psychological safety)은 자신감을 높인다. 의기소침하던 아동이 스스로 나서 PPT를 만들겠다고 한 장면에서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재훈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 배경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주요한 성과다. 엄마가 베트남에서 왔기에 이번에 엄마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고, 주변 아이들도 그것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공간에서 누구도 자신의 배경을 차별하거나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에 기인한다.

OO라고, 이 친구가 작년에 레고랜드를 같이 갔었는데,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하면 “야 하지 마라…….” 이러면서 되게 의기소침하고, 짱구에 나오는 캐릭터로 따지면 훈이! 올해 교육을 하는데, 애가 “선생님! 제가 PPT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다!”하더라구요. 자신감이 없던 앤데 되게 자신감 있게 하고.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재훈 사회복지사)

그때 OO이가 갑자기 “선생님! 저 방학 때 베트남 가요. 저희 엄마 베트남 사람이라서 베트남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의 아이들이 “야! 그걸 왜 말하는데 TMI다.” 하는데, OO이는 “뭐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애들이 되게 자신감이 올라왔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면서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제 자신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때 되게 부듯하더라고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재훈 사회복지사)

궁금한 마음에 참여 아동의 엄마와 인터뷰하였다. 옛된 모습의 베트남 출신 OO의 엄마는 한국에 2009년에 이주하여 15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비교적 정확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었지만, 조사 사용(예 : ~이, ~가 등)은 여전히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무엇보다 베트남에서 온 것을 숨기지 않게 되었고, 이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변화가 크다고 말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선생님 통해서 한국 와서 사는 것 나쁜 거 아니다. 그런 생각 바꾸는 느낌 들어요. 우리 베트남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라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생각, 더 많아졌어요. (베트남 출신 OO학생의 엄마)

4.1.5. ‘문화 창작자’로서 주인공 되기

이 프로그램은 문화 다양성과 수용성의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문화 콘텐츠

창작자로서 경험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문화 창작자로서 역할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성서공동체FM 서현정 PD는 아이들이 운영하는 <고민 상담소> 프로그램에서 누군가 사연으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라는 사연에 대해 “그럼 일찍 주무세요.”라는 이따다운 답변을 하였는데 그 자체가 재미있는 콘텐츠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였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문화 창작자로서 주인공으로 서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창작물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저희 방송 중에 고민 상담소가 있는데,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고민을 아이들이 그냥 생뚱맞게 상담해 주기도 해요. 사연 중에 누군가 아침에 못 일어나겠다고 그러면 “일찍 자던가.” 정말 생뚱맞게. 그런데 그것도 이야기 나누다 보면 되게 재밌는 콘텐츠가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서현정 보조강사)

4.1.6. 문화 다양성의 수용성 증대

대구죽전초등학교의 송경숙 상담복지사는 아프리카에서 온 아이의 적응 과정을 보며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올해의 창작물 ‘흑설공주’⁹⁾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 아이는 중도입국하였는데, 당시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 동네를 배회하였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송경숙 상담복지사는 아이의 적응을 위해 이 프로그램

9 우리가 잘 아는 동화 <백설 공주>는 피부가 눈처럼 흰 아이여서 백설(snow white)이라고 이름이 붙었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흰 것은 아름답다는 도식이 동화에도 잠재된 셈이다. 아이들은 백설 공주의 이야기를 비틀어 제목을 흑설공주로 바꾸고, 그 주인공을 맡은 아이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중도입국한 학생이었다.

에 참여하도록 보호자에게 권했다. 그 아이는 이 프로그램에서 흑설공주의 주인공을 맡아 오히려 주눅 들지 않고 친구들과 사귄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어도 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변 아이들도 그 아이를 달리 대하지 않는 것을 보며, 다양성에 관한 교육이 아이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기억나는 아이는, 오늘 (그 아이의) 동생이 왔는데, 언니가 톡톡해요. 처음에 중도입국이어서 외국인 등록증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못 가고 방과후 돌봄도 안 되고 그냥 배회하는 중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동센터장님이 ‘내가 애들을 안 받아주면 우리 지역사회 아이들은 누가 받아주냐.’ 이렇게 해서 받아주셨는데, 어머니가 또 안 보내시고. 애들을 금방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가치관의 차이가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가 한국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내고부터 애들도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너무 성실하게 잘해요. 다른 애들하고도 잘 지내는 편이고 리드도 좀 하는 편이고. 또 우리 대본의 ‘흑설공주’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내가 피부색이 좀 검다고 이상하다? 이렇게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내 피부색이 어때서? 나는 또 나대로의 이런 인종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구죽전초등학교 송경숙 상담복지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았다. 다양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였다. 2024년에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참여 아동은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초등학교의 입에서 이를 당당하게 말하게 된 것, 그리고 이를 내면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살아갈 미래에 세계시민으로서 중요한 소양이 될 것이다.

그냥 외국인들이랑 우리랑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 차별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걸 갖게 된 것 같아요. (김희수 학생)

문화 다양성이라는 걸 몰랐는데 지금은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않고 또 같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박우진 학생)

4.1.7.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 확대

이 프로그램은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확장했다. 미지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삶은 어떤지 궁금증을 갖게 하였다는 것은 학습의 큰 효과이다. 학습의 목표는 무언가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찾아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고 있었다. 한 아이는 러시아가 궁금하다고 하였다. 넓은 동토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글에서 그 아이의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을 묘사하기는 어렵다. 반짝이는 호기심이 늘어간다는 것은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기대로 넘치게 한다.

저는 러시아가 궁금해졌어요. 땅이 정말 넓은데 사람이 안 사는 곳이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알고 싶고, 그리고 그 잘 모르는 땅이 궁금해졌어요. (이채은 학생)

4.2. 교강사의 성장과 변화

4.2.1. 교육자로서의 성장

교강사 역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선 아이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과 가깝게 소통하며 아이들의 이야기와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2020년 재단 사업을 하기 전에도 다문화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해보자, 인식해보자 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지만 정말로 와닿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랑 더 가깝게 소통하고 밀접하게 있으면서 저 또한 아이들과 함께 배웠던 것 같아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 다문화가족도서관 이해인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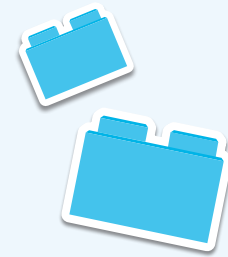
4.2.2. 함께 키워내는 보람

지난 5년간 이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은 진행 과정에서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고, 자녀를 키우며 또한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를 통해 나의 자녀가 특별하듯, 우리의 모든 아이가 특별하고 다양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김재훈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다. 새내기 사회복지사로서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처음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몰랐지만, 아이들이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다. 이러한 보람은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요한 동력이기도 하다.

제 아이도 초등학교 입학을 하며 이 사업을 하게 됐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키웠던 부모는 아니지만, 이 아이들을 같이 키워낸다는 그런 기분에 엄청나게 보람되기도 하고……. 좋은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는 그냥 서로 서로 특별하단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나도 특별하고 너도 특별하고 다양하다.’라는 게 특별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니까, 좀 특별한 존재로 잘 키워보고 싶다고 생각해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최한구 과장\)](#)

지금 봐도 애들이 진짜 많이 컸거든요. 저는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대화해보니까 그 아이에게도 나름의 이유, 생각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내가 아이들을 대할 때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반성하게 되고, 아이들 커 가는 것을 보는 보람도 정말 컸고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재훈 사회복지사\)](#)



05

향후 방향과 과제

5. 향후 방향과 과제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은 이주민 밀집 지역이다. 이곳의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이주 노동자와 이주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지원사업을 펼쳤고, 2010년대 들어 동화주의적 접근을 넘어 다원주의 다문화 접근으로서 문화 사업과 교육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2020년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며 외국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였고, 이들의 자녀인 아동은 한국 사회에서 또 다른 이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오래전부터 문화 다양성 사업을 펼쳤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적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선도적인 활동은 지역 내 시민사회 부문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배움터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문화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 지역 공동체 라디오 등과 이미 협력하고 있었고,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20년 코로나19 속에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꿈틀꿈틀 레고레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단순하고 일방적인 문화 다양성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기획하고자 노력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귀를 열었고, 레고로 스톱모션을 만들자는 다소 무모한 시도를 김병우 관장은 수용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김병우 관장과 아이들의 초코우유 간담회 같은 활동은 그런 점에서 상징적이다. 이 프로그램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되었던 계기 중 하나는 2022년 한 컨설팅 위원의 코멘트였다. 아이들이 만든 문화 창작 콘텐츠가 레고랜드에서, 달서구에서, 대구 지역에

서, 그리고 한국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슴 뛰는’ 일이라는 비전이 생겼다.

이에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2023년 2개의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했고, 2024년에는 3개의 지역아동센터, 1개의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했다. 프로그램 5년 차인 2024년에는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창작뿐만 아니라 샌드아트, VR 동극,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창작 활동 등으로 확장하였다.

첫해부터 이어온 대표 프로그램인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상징성을 고려해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꿈틀꿈틀 레고레고’다. ‘꿈틀꿈틀’의 사전적 의미는 ‘몸의 한 부분이 자꾸 구부러지거나 비틀리며 움직이다.’, ‘자꾸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일다.’라고 한다. 레고를 조금씩 움직이며 애니메이션을 촬영하는 활동을 빗댄 말이다. 하지만 이는 두 번째 사전적 의미, 즉 새로운 꿈을 일어나게 하는 활동이 되었다. 동시에 다른 말로 풀이해 보자면, ‘꿈’의 ‘틀’, 즉 꿈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하고 있기에 문화 창작자로서 아동에 주목했고, 자유롭게 꿈을 펼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성과 자기 주도성을 키워냈다. 조용하던 아이가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 중도 입국 아동은 스스로 ‘흑설공주’의 주인공이 되어 차별을 넘어섰다. 선생님 꿈무늬에서 소심하던 아이가 스스로 손을 들고 발표하기 시작했고, 베트남에서 온 아이는 이제 또래 강사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아이들의 동기 강화를 통해 성취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레고를 조립하고, 직접 이야기를 만들고, 조금씩 조작하며 촬영하고, 그것을 이어 붙여 영상을 만들었다.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보이는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고 라디오 진행자가 되어 녹음했다. 샌드아트를 창작하고, VR 동극을 만들었다.

모든 주제는 문화 다양성이자, 차별을 넘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다. 어느 아
이가 말하듯, 문화 다양성은 차별하지 않고 함께 행복한 거라 말한다. 그게 맞
는 말이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복지관 직원과 참여기관 담당자들은
한 해 150번 이상을 만났다. 복지관에서는 이 사업의 기획자인 최한구 과장을
포함해, 이혜인 사서와 이승현, 김재훈 사회복지사 등 총 4명을 배치해 각 4개
기관을 전담하도록 하고, 재량을 부여했다. 참여기관은 실무자와 말하면 이야
기가 통했다. 복지관 직원들은 대표기관으로 참여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
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태도로 임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운전기사를 자
처했고, 유행하는 포켓몬 떡을 구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기꺼이 줄을 섰다. 파키
스탄 출신 아이가 라마다 기간 중 육류를 못 먹는다며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들이 비로소 문화 다양성을 추상적 개념이 아닌 내면화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닫고 아이들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격려했다.

2024년, 이 프로그램은 다섯 해를 맞아 더욱 몸집은 커졌고, 공동사업을 통
해 지역 내 영향력은 확장하였으며, 아이들은 시나브로 커 있었다. 하지만 숲이
깊은 만큼 그늘도 긴 법이다. 문화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넘어 보편적인 인권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역량도 고려해야 할 부담을 갖게 된 것이다. 사
실, 아이들은 문화 다양성을 이미 체화하였을지 모른다. 레고가 재밌고, 이 활
동이 주는 신기성, 어른들의 따스함에 조금씩 크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
면 문화 다양성을 지향하더라도 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에서 모든 프로그
램과 가치에 녹아들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
에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또 다른 시즌 3을 꿈꾸는 중이다. 달서구와 대구시
를 설득하여 폐교를 아이들의 전용 창작공간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고 문화 생산자로서 아이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꿈꾼다. 더 이상 아이
들의 출신 배경은 중요치 않다.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학습

하고, 팀 활동을 통해 배려와 공감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본질에서 인간
은 모두 다른 존재다. 성별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며, 취향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다. 다름이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은 함께 어울리며 체득하
고 있다. 그 점에서 다양성을 어떻게 보편적인 인권의 하나로 교육하고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인 것이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4개의 참여기관(희락·본영·
한결지역아동센터, 대구죽전초등학교)의 경험은 먼저 온 미래를 보여주며, 우
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꿈의 틀이 되어
꿈틀대는 대구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